

전남 1호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2012년 3월 개교 목표... 담양군 옛 봉산초 양지분교 부지에 전남교육청, '지리산통일학교' 설립도... 혁신 교육체계 구축

전남교육청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역 첫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첫 삽을 뜨기로 하는 등 혁신적인 교육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등에 따르면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담양군 봉산면 옛 봉산초 양지분교 부지에 전남 1호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 지은 뒤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이어 도의회 설립 동의안 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최근 실시설계까지 모두 마쳤다.

담양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전문가인 민간위탁자의 역량을 공립학교에 접목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대안교육 희망학생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담양 대안학교에는 교육부 예산 40억원에 담양군 지원금 11억5000만원, 도교육청 자체 예산 28억원을 더해 모두 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안교육 특구 지정에 추진중인 담양군은 10억원 가량의 대안학교 설립 지원 예산과 개교 이후 3년 간 매년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의 생태환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민관이 협업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차별한 논쟁과 많은 숙의과정을 통해 규격화된 제도권교육을 넘어서는 미래형학교 설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최근 구례군과 '지리산통일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 교육청은 통일학교를 교육공동체 작업의 하나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리산통일학교 설립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지역 문제를 협의하고 공동으로 실천해나가는 취지로 '구례교육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양측은 구례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호국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6·25 전쟁 당시 남북분단의 갈등이 마지막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통일 교육을 통한 통일

의 불씨 살리기에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다.

또 최근 통일 교육이 안보에서 벗어나 평화와 남북교류로 선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적극적인 추진 배경이 됐다.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역사문화관'에 설치될 예정인 지리산통일학교는 통일 명사와 여순사건 유족, 새터민 등을 강사로 초빙하고 구례군에 산재한 호국, 역사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통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윤덕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체험과 힐링을 통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거시적이고 감수성 있는 평화통일 교육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대만 '장영대'와 국제 교류 강화



중국어 어학연수단 참여 등 학생 문화학술 교류 활성화

동신대학교가 자매대학인 대만의 장영대학교와 국제 교류를 강화한다.

13일 동신대에 따르면 상담심리학과 이주희 교수가 최근 장영대학교 양사해 이사장, 이영룡 총장, 이민유 국제교류처장 등과 만나 두 대학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의 자매 학교인 사티아 와카나 기독교 대학교

(Satya Wacana Christian University)의 금융회계처장 하리아니(Haryani) 박사도 참석했다.

현재 이 교수는 교환 교수 자격으로 대만 장영대학교에서 사회 진출을 앞둔 대만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의 마음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영대학교는 동신대 학생들이 중국어 어학연수단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두 학교 학생들의 문화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근로자 건강 챙긴다

광주 첨단산업단지 산재 예방

동강대학교가 광주 첨단단지 내 산업단지공단 근로자들의 산재 예방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동강대(총장 이민숙)가 지역 산업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강대 스포츠재활트레이닝은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관할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재 발생 시 신속한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강대는 광주 첨단단지 내 산업단지공단의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이에 앞서 동강대 산학협력처는 지난해 4월 산단공 광주전남본부와 '산학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가 지난해 10월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열린 '광주첨단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GX(group exercise)프로그램과 스프링사이클 공연을 펼쳤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학생·학부모 위한 친환경 체험농장

광주 서부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친환경 체험농장을 7년째 무료로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학생·학부모가 농사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광산구 선동 옛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 유휴지를 자연체험농장으로 조성·운영 중이다. 이 농장은 올해도 최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분양했다.

<광주 서부교육청 제공>

호남대 '3차 콜로키움'...인문학의 방향 모색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최근 교내 복지관 대형 강의실에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강단 인문학의 이야기'를 주제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1차년도 '제3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학연구소 콜로키움'을 열고, 인문학의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호남권 사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의 '2019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책임교수 운영)에 선정돼 6년 동안 최대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호남대는, 지난 3월 19일 개최한 '2회 콜로키움'에 이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을 가졌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양진호 소장(인문학교육연구소)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강단 인문학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진호 소장은 "우리 사회에 따뜻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인문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강단 밖 인문학 교육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단 중심의 인문학에서 밖으로 나아가 민중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빚고을 50+ 일자리사업 2년 연속 선정

광주여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빚고을 50+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광주시에 광산구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장년층 중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창업과 사회봉사 등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여대는 참여자 선발과 관리, 활동 지원사업 모델-개선사항 발굴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수행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평생교육원 박득 원장은 "중장년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선령 20년 '청경호' 대체 420t 최첨단 조사·실습선 건조

사업비 207억 원 확보

올해 말까지 설계 완료

전남대학교가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 조사와 수산 자원 연구 및 학생 실습에 투입

할 최첨단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한다.

전남대 수산해양대학(학장 김태호)은 최근 ㈜한국해사기술과 선박 건조 사업의 첫 과정인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새 선박 건조에 들어갔다.

이 조사선은 총톤수 약 420t, 전장 46m

, 폭 9m 규모로 항해속도는 13노트이며, 승무원과 조사원 등 약 40명이 승선할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전남대는 총사업비 20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

고,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취항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양조사와 수산자원연구, 실습에 사용돼 온 '청경호' (총톤수 115t)는 노후화로 유지·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항해 및 해양조사 장비의 성능 저하로 선박 운항과 현장실습에 차질을 빚어오면서 대체선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만 자민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체하는 815 대출
- 다주택 보유에 가구에 2억~4억 원의 현금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대출 (신용보증)
- 지역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